

SOCIETY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호남 산재 사망 급증...“노동자 안전대책 절실”

서구, ‘안전 1번지’ 구축 온힘
화정아이파크 현장 안전 코칭

광주 서구가 현장 중심의 한층 강화된 건설안전·품질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14일 서구에 따르면 화정아이파크 건설 현장에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안전 코칭’을 도입해 서구 안전관리지원단 등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 점검에 나선다.

‘건설안전 코칭’은 안전 제도 이행력 제고와 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 주체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고 감축을 목적으로 한다.

점검은 오는 22~23일 진행되며 준공 때까지 분기별로 실시한다.

특히 서구는 안전관리계획의 현장 이행 실태, 현장양생공사체(현장조)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한 샘플 관리 현황,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시 책임기술자 승인 여부, 리프트·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작동 상태 및 전도 방지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촘촘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안전 1번지 서구’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정아이파크 건설 현장은 지난해 10월 주거 층에 대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완료했으며, 이후 잔치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뒤 올해 1월부터 재시공이 진행 중이다. 윤용성 기자

작년 18.9% 증가 ‘전국 최고’...올해 건설현장 사고 속출
불법 외국인력 투입 등 원인...“현장 맞춤 정책 마련해야”

지난해 호남지역(광주·전남·전북·제주) 산업재해 사망자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계 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2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6명) 대비 18.9% 급증한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같은기간 서울청은 15.6%(230명), 부산청 6.2%(309명), 대구청 2.5%(207명)에 그쳤다. 반면 대전청 6.5%, 경기중부청은 2.5%(862명) 감소했다.

올해도 광주·전남지역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속출했다.

지난 3월23일 광주 서구 마루동의 한 견본주택 철거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1.2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했다. 이 노동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일주일 만에

숨졌다.

이틀 뒤인 25일 오후 3시 동구 지산동 한 주택 철거 현장 가림막이 무너지면서 60대 작업자 A씨가 깔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된 작업자 A씨는 허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같은 기간 전남 건설현장에서도 잇따른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12일 전남 곡성군 삼기면 한 조립식 주택 건설 현장에서 용접 중이던 50대 작업자 2명이 4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55)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B씨(58)는 다리가 골절됐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역 산업재해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이후 수년간 이어온 노사 작업환경에 대한 합의가 무너진 점 등을 꼽았다.

또 최저가 낙찰제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지하층 공정처럼 안전이 중요한 작업까지 불법 외국인력들이 투입되면서 현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시스템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의 핵심은 ‘교육’과 ‘설비 강화’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강용일 호남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고령·외국인 노동자 증가, 형식적인 교육, 예산 부족에 따른 안전설비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다”며 “산업별·작업 유형별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현장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고가 반복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 차단장치 도입과 작업금지 제도화가 필요하며 기술·작업자 참여가 균형 잡힌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산업현장 선제적 안전관리로 사망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2025년 산업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10억여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안전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예방체계 구축과 산업재해 취약부문 지원 및 현장점검 강화, 교육·캠페인을 통한 안전문화 의식 확산, 안전한 일터를 위한 근로환경 지원 등 4대 전략과 17개 과제를 시행한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동구 충장로 ‘홍콩의 거리’ 조성...내달 마무리

광주 동구는 충장로3가에 조성 중인 ‘홍콩의 거리’ 사업 대상자와 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오는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해 8월 충장로안길 5(충장로3가 33-1) 약 70m 구간에 특색을 부여하고, 보다 많은 방문객을 유도하기 위해 ‘홍콩의 거리’ 조성에 들어갔다.

특히 지역 내 젊은 청년 유동인구 유입과 도심 속 체류형 상권 조성을 목표로 예산 2억원을 투입해 6월 중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홍콩의 거리’는 단순히 홍콩의 이미지만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홍콩 현지에 온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레스토랑, 주점, 디지털 카페, 위스키 바 등 다양한 점포가 들어설 예정이다.

조성 대상지는 장기간 방치됐던 폐점포 밀집 지역으로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는 홍콩의 거리를 마중물로, 쇼핑·음식·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콘텐츠를 통해 충장로의 활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서구, 직원 대상 ‘심 클래스’ 운영 14일 오후 광주 서구보건소 체력인증센터에서 열린 ‘소도구를 활용한 체력관리 프로그램(체형교정 PT)’에서 서구청 공직자들이 전문강사로부터 목, 복부, 종아리 등 스트레칭을 배우고 있다. 서구는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자기계발을 위한 ‘심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시교육청, AI팩토리 올해 150개까지 확대

광림초 등 44개교에 추가 구축...관련 세미나 개최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AI팩토리’(미래교실)를 150개 이상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AI팩토리’는 학교 공간 재구성을 통해 언플러그드 활동, 코딩, 협업 수업 등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AI팩토리 구축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송정서초등학교 등 총 114개 학교에 구축했으며, 올해는 광림초등학교 등 44개교에 추가 조성한다.

학생들은 AI 융합교육 공간에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구현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사업에 앞서 지난 12~13일 계수초, 송정서초, 동아여고, 상일여고에서 업무 담당자 110여명을 대상으로 ‘AI팩토리(미래교실) 구축사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사업 대상 학교의 담당 교사 및 업무 관계자들과 함께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AI팩토리 구축 학교 사례공유 △실무자 질의응답 △공간 설계·공사 진행·준공 검

사 등의 절차 안내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윤주 우산중 교사는 “미래교실 구축 사례와 시설 관련 설명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향후 우리 학교에 어떤 방식으로 공간을 조성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AI팩토리 사업으로 학생들이 미래 교육환경 속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역량을 기르며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남구, ‘백운광장 금·토 야시장’ 개장

내달 말까지 운영...볼거리·먹거리 ‘다채’

광주 남구 백운광장의 핫플레이스인 푸른길 브릿지와 스트리트 푸드존 인근에서 열리는 백운광장 금·토 야시장이 문을 열었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백운광장 금·토 야시장이 지난 10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손님맞이에 나섰다. 이곳에서는 6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다채로운 공연과 먹거리 향연이 펼쳐진다.

특히 남구는 올해 백운광장 주변 골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사업비를 백운광장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에 지원한다.

백운광장 금·토 야시장은 남구와 상인

회 간 민·관 협력 사업의 하나다.

남구는 지난해 5월에 개장한 야시장이 조기 안착하도록 차 없는 거리 지정과 무더위를 식히는 살수차 운영, 각종 공연 및 이벤트 개최 등 3개월 간 행정력을 집중하며 활성화를 지원했다.

야시장은 지난해 8월부터 상인회에서 독자적으로 운영 전반을 맡고 있으며,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백운광장 일대를 대표하는 먹거리 골목으로 변신했다.

남구는 올해도 백운광장 금·토 야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방문객들에게 매주 다채로운 공연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금요일을 제외한 토요일 야시장 날에는 스트리트 푸드존 주변 지역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야시장 운영과 함께 백운광장 골목형 상점가 지역에 있는 점포 10곳의 온라인 홍보를 위해 네이비 플레이스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고, 시장 매니저를 육성해 백운광장 상인들의 행정업무와 마케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백운광장 금·토 야시장이 시작된 이후로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극한의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야시장은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명진 기자 looks@gwangnam.co.kr

N-NEXUS

N넥스스 시리즈는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엔에이치에이 IT 기술이 탑재된 자사의 브랜드입니다.

NHNETWORKS

연 구 & 계 획 통합영상제작, 지능형 영상제작 솔루션, 배신자 솔루션

제 조 & 제 작 주·영화 제작 및 CCTV 시스템

E S S 시 스템 신재생 에너지 및 LED 조명 시스템, 구조물 및 형상시설 아연이 인편 용접 보조 장치

설 계 & 자 문 유·무선망 구축, 스마트시티, 영상관리, 보안·지능형교통·열차위치 시스템

유 지 보 수 & 감 리 ICT 장비, ICT 운영 및 유지보수

시 장 & 설 치 정보통신망사, 스마트시티 설계, 공항 ICT 분야 설계, ITS 설계, 열차위치 시스템, 배신자통신망사

TEL 062-719-1080~2